

# 고대 국가의 역사를 벽화로 표현해 볼까요?

## 수업 목표

인물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표현할 수 있다.

## 차시 구성

이 차시는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에 대한 역사를 상상하여 벽화로 표현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전개**
  - 고대 국가의 역사를 담아 벽화 그리기
  - 나만의 벽화 발표하기
-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예고하기

## 교과 역량



## 지도상의 유의점

벽화로 표현할 역사의 한 장면은 교과서의 내용이나 조사한 자료에 기반하여 상상하도록 한다.

## 교수·학습 과정

### 도입

#### 1 동기 유발하기

- 이번 주제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 선덕 여왕에 대한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 이미 지나가서 알 수 없는 고대 국가의 역사를 어떻게 소설이나 영화로 표현하였을까요?
  - 문화유산이나 기록을 통해 추측하였을 것 같습니다.

#### 2 학습 문제 확인하기

고대 국가의 인물과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벽화로 그려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표현해 봅시다.



1

## 고대 국가의 역사를 벽화로 표현해 볼까요?

2

이 시기에 인물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표현할 수 있다.

3

고조선 건국 이후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한 나라들은 주변의 세력과 교류하거나 경쟁하며 성장하였으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고대 국가의 역사 속 한 장면을 상상하여 당시 사람들처럼 벽화로 표현해 보자.



32

### 전개

#### 3 고대 국가의 역사를 담아 벽화 그리기

활동 안내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대 국가의 역사를 상상하여 표현해 본다.

활동 방법

고대 벽화를 살펴본 후, 고대 국가의 성장에 기여한 인물이나 대표적 문화유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조사하게 한다. 이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한 장면을 사포 위에 그리고 적절한 제목을 붙이도록 한다. 완성한 벽화를 교실 벽면에 붙이고, 자신의 작품에 담긴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지도+** 각 나라의 성장과 문화의 특징이 드러나는 인물과 문화유산을 골고루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모둠별로 특정 국가나 시기를 정하여 표현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 교과서 32쪽의 벽화를 살펴봅시다. 고대 사람들이 남긴 벽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옷, 음식, 집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 사람들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그린 벽화



이름 ○ ○ ○ 제목 비석을 세운 장수왕

이렇게 해요

- 고대 국가의 사람들이 남긴 벽화를 살펴봅니다.
-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벽화에서 다루고 싶은 고대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정합니다.
- 선택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벽화로 그릴 장면을 상상합니다.
- 상상한 장면을 사포 위에 그리고 제목을 붙입니다.
- 완성한 벽화를 교실 벽면에 붙이고, 자신의 작품에 담긴 내용을 발표합니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모습을 '비석'을 세운 장수왕'으로 표현했어요.



불국사의 옛 모습을 담은 '불국사 탑돌이'를 그렸어요.

이름 ○ ○ ○ 제목 불국사 탑돌이

5 스스로 확인해요

- \*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선택했나요? ☐ 예 ☐ 아니요
- \* 선택한 인물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을 벽화로 잘 표현했나요? ☐ 예 ☐ 아니요
- \* 완성한 벽화에 담긴 내용을 친구들에게 잘 설명했나요? ☐ 예 ☐ 아니요

- 각자 다루고 싶은 주제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 장수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불국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벽화로 그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 상상한 장면을 사포 위에 그리고 그림에 맞는 제목을 붙여 봅시다.

4 나만의 벽화 발표하기

**지도+** 활동 이후 **사회** **생각** **문답**을 통해 고대 벽화와 같이 원래의 형태를 잃은 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다.

- 각자 완성한 벽화를 교실 벽면에 붙여 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담긴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운 모습과 기뻐하는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 불국사의 옛 모습을 담은 벽화를 그렸습니다.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32~33쪽에서는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고대 국가의 역사를 상상하여 벽화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이후에는 자신의 작품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그림 해설

교과서 33쪽에 제시된 두 그림은 활동 예시 작품이다. 첫 번째 그림은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을 당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불국사 삼층 석탑을 찾아 소원을 빌며 탑돌이를 하는 신라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학습 준비물(교수·학습 자료)

수행 평가지(지도서 279쪽)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벽화에 어떤 인물을 그리고 싶은가요?
- 벽화에 어떤 문화유산을 그리고 싶은가요?

정리

5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친구들이 그린 벽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그러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 '불국사 탑돌이'가 기억에 납니다. 불교를 믿은 신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 확인해요**를 점검해 봅시다.
- 즐거워 정리해요**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6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건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하기

평가 관점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표현할 수 있나요?	상	적절한 인물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표현할 수 있다.
		중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표현할 수 있다.
		하	고대 국가의 성장과 문화 발전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수업 도움 자료

###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34쪽은 주제와 관련한 읽기 자료로 구성하였다. 고대 문화유산을 디지털 복원 기술로 되살린 사례를 통해 오래된 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 사진 해설

교과서 34쪽의 사진들은 디지털 복원 기술을 활용하여 복원한 황룡사와 사비성의 모습이다.

## 사회 생각

##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만드는 디지털 복원 기술



이미 손상되었거나 사라진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을 '복원'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로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디지털 복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외국의 침략을 받으며 불타버린 신라의 황룡사.



백제가 도읍을 옮기며 지은 사비성도 디지털 기술로 복원했어요.



디지털 복원 기술로 오늘날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모습을 보존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시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어요.



멀고 어렵게 느껴졌던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34

## 사회 생각

### 수업 방법 및 활용

문화유산 복원 과정과 결과물을 확인하며 우리 문화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식되거나 여러 사건으로 원래의 형태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문화유산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문화유산 복원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실물 복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복원을 하여 사라진 문화유산도 시각적으로 되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 자료 더하기

#### 사라진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 디지털 복원

문화재청 국립 문화재 연구소와 경상북도 경주시는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써 지금은 터로만 남아있는 황룡사의 일부를 증강 현실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였다.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재를 디지

털로 구현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를 하나하나 만들어 세부 사항을 자세히 표현하고 내부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복원한 것은 황룡사가 최초의 사례이다.

— 『파이낸셜 뉴스』 2020. 7. 22.

#### 1400년 만에 환생한 '사비성 프로젝트'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의 다큐멘터리 「사비성 사라진 미래 도시」는 최근 발굴된 유물을 거름 삼아 1400년 전 백제 사비성의 탄생 과정을 복원하여 백제를 들여다보는 국내 최초의 시도로 주목받는다.

지금 부여에는 왕궁터 추정지, 나성 일부 구간, 부소산성 일부 그리고 도로와 수로 등 과거 사비성의 존재를 증명하는 몇 가지 유적만 보존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실마리를 얻어 사비 왕궁, 바둑판식 시가지, 민가와 귀족 사택까지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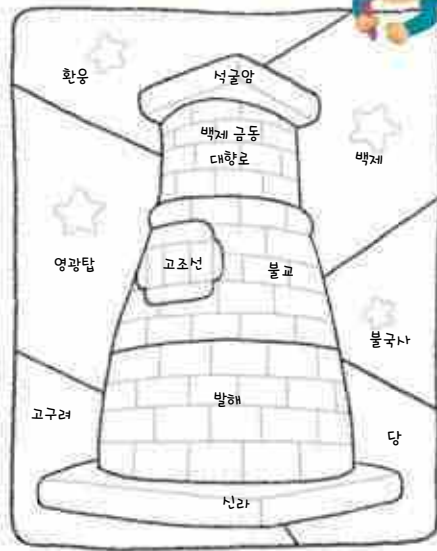
— 『한겨레』 2010. 9. 9.



1

‘나라의 등장과 발전’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문제의 답을 그림에서 찾아 해당 영역을 색칠해 봅시다.

- 1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국가의 이름은 무엇일까?
- 2 백제의 문화유산으로 용이 연꽃 불오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의 향로는 무엇일까?
- 3 삼국이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였던 종교는 무엇일까?
- 4 삼국을 통일한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
- 5 신라인이 경주 토함산에 등굴처럼 만든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
- 6 대조영이 세웠으며,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내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



2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색칠해 봅시다.

- \*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와 성장 과정을 알게 되었나요? ☆☆☆
  - \* 삼국 및 가야의 성장 과정과 문화를 말할 수 있나요? ☆☆☆
  - \* 삼국 통일과 발해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
- (☆☆☆ 매우 잘함 ☆☆☆ 잘함 ☆☆☆ 보통)

정답 160쪽

35

## 수업 도움 자료

###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35쪽은 이번 주제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색칠 놀이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다.

###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 색칠하면 보이는 문화 유산은 무엇인가요?
- 고대 국가와 관련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즐겁게 정리해요

제 2 부 1단원

교과서 32 ~ 35 쪽

1 ‘나라의 등장과 발전’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문제의 답을 그림에서 찾아 해당 영역을 색칠해 봅시다.

### 활동 방법

- ① 교과서 35쪽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한다.
- ② 문제의 답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찾고, 찾은 답에 해당하는 영역을 색칠하도록 한다.
- ③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 색칠하고, 완성하였을 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정답

- |        |              |
|--------|--------------|
| 1. 고조선 | 2. 백제 금동 대향로 |
| 3. 불교  | 4. 신라        |
| 5. 석굴암 | 6. 발해        |

2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색칠해 봅시다.

-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와 성장 과정을 알게 되었나요?  
-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 고조선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력을 넓혔습니다.
- 삼국 및 가야의 성장 과정과 문화를 말할 수 있나요?  
- 백제는 4세기 무렵에 근초고왕의 활약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 고구려 사람들은 수산리 벽화와 같은 고분 벽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 삼국 통일과 발해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신라는 김춘추, 김유신 등의 활약으로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 기와, 무덤, 탑 등의 문화유산으로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 당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교수·학습 참고 자료

## 자료 1 고분 벽화

교과서 32쪽

고분 벽화는 고대 회화의 제작 과정, 표현 기법과 수준, 안료 및 아교 제조술 등 여러 가지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또한 고대 사회의 생활 풍속·신앙 등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역사·문화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고대 사회의 초기에는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세상이 현재의 세상과 모든 점에서 같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고대에는 지배자들이 현세에서의 신분과 지위를 내세에서도 누리기 위해 죽으면서 처첩과 시종, 관리와 무사, 노비를 무덤에 함께 묻게 하였다. 이를 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죽은 이의 세계에서는 현세의 사람과 물건이 별 쓰임새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자 무덤 안에는 모형이 묻히거나, 더 나아가 생전의 영광을 기리고 누리고 싶은 내세의 삶을 표현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신라와 가야에서는 모형을 껴묻는 습속이 오랫동안 지속된 반면,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무덤 칸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유행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벽화 고분이 대략 3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 지속해서 만들어졌고 벽화의 내용과 구성 방식 등도 시기에 따라 바뀌었다.

삼국 시대 고분 벽화의 주제로는 보통 생활 풍속·장식 무늬·사신(四神) 등이 선택되었다. 생활 풍속을 주제로 한 고분 벽화에는 주로 묻힌 자가 살아 있을 때의 생활 가운데 기념할 만한 것과 풍요로운 생활 모습을 그렸다.

무덤 내부는 대부분의 경우 무덤 칸 각 방 모서리와 벽에 붉은색 안료로 기둥과 들보·두공 등 목조 가옥의 골조를 그려서 죽은 이 생전의 저택처럼 보이게 하였다. 장식 무늬로는 불교의 연꽃무늬가 즐겨 선택되었다.

벽화 고분의 천장부는 흔히 하늘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북두칠성 등의 별자리 및 별자리 신앙과 관련된 선인(仙人)·천인(天人), 상상 속의 상서로운 동물들로 장식하였다. 또한 무덤에 묻힌 자나 그 일족의 종교 및 내세관에 따라 천장부의 장식 요소가 바뀌기도 하였다.

무덤 칸 천장부에 연꽃무늬나 여래와 보살 등을 그린 불교 계통의 벽화가 있는가 하면, 용이나 기린, 학 등을 탄 선인들과 불로초 등을 그린 도교 계통의 벽화도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고분 벽화」

## 자료 2 고구려 고분 벽화에 깃든 의미

교과서 32쪽

고구려인에게 무덤은 죽은 자가 거처하는 집이며 하늘 세계로 가는 통로였다. 이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은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석실 주위에는 살았을 때의 삶을 기억하고 저승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벽화를 그렸다. 그 결과 고분 벽화에는 주인공의 생전 모습이나 그들이 누렸던 생활상이 재현되어 있다.

— 한국 생활사 박물관 편찬 위원회, 「한국 생활사 박물관 3」

## 자료 3 무용총

교과서 32쪽

무용총은 중국 지린성 지안시 우산(禹山) 남쪽 기슭에 있는 고구려의 벽화 무덤이다. 무덤의 구조는 두방무덤이다. 앞방은 천장부의 내면이 고르게 둥근 호선을 이루면서 좁혀 올라간 궁륭 천장이고, 널방은 천장을 계단식으로 괴면서 팔각형으로 좁혀 올린 팔각뿔 천장이다. 널방은 크고 작은 석재로 축조하였으며, 바닥 서반부에는 크고 작은 4장의 판석으로 된 관대가 마련되어 있다. 벽화의 내용은 인물·풍속도 및 사신도이며 두껍게 회칠한 앞방·널방의 네 벽과 널방 천장에 그려져 있다. 앞방과 널방에는 전체를 목조 가옥 구조로 보이기 위해 각 벽 네 모서리에 기둥과 두공을 그렸다. 앞방의 벽에는 한 쌍의 안장과 인물·건물이 그려져 있다. 널방의 북벽에는 「접객도」, 동벽에는 14명의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가무도」가 그려져 있다. 여기서 이 벽화 고분이 「무용총」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서벽에는 「수렵도」가 그려져 있는데, 기복이 있는 산악에서 4명의 기마 무사가 사냥을 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남벽은 앞방으로 통하는 통로에 의해 벽면의 아랫부분이 동·서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다. 갈라진 동쪽과 서쪽의 두 부분과 통로의 좌우 벽에는 각각 한 그루의 큰 나무가 그려져 있다. 천장에는 해·달·별·청룡·백호·비천·신선·기린과 이상한 짐승, 구름무늬·연꽃무늬·불꽃무늬 등이 그려져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무용총」

## | 수업 효과

고대 국가의 역사를 벽화로 표현하기 전에 학생들과 함께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제공하는 수산리 고분 가상 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도 실감나게 고대의 고분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 | 수산리 고분

수산리 고분은 5세기 후반 무렵에 축조된 흙무지 돌방 벽화 무덤으로,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에 위치한다. 1971년에 이 무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있었다. 수산리 고분은 발굴 당시 이미 도굴되어 유물이 거의 없었고 벽화도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무덤의 구조는 단실묘이며 벽화의 주제는 생활 풍속이다. 무덤의 정벽인 북벽에는 묘주 부부의 실내 생활이 표현되었으며 그 좌우 벽에는 실외 활동이 묘사되었다.

수산리 고분 벽화는 당시 귀족들의 옷차림과 꾸밈새를 비롯하여 나들이와 놀이 등 일상의 생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 고구려의 상류층 문화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인물화는 원숙하고 세련된 필치와 부드러운 색감으로 뛰어난 회화성을 보여 준다. 특히 색동 주름치마에 저고리 차림의 여인은 일본에서 발굴된 다카마쓰 고분 벽화에 그려진 여인의 모습과도 흡사하여 고구려와 일본의 문화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 | 수업 방법

- ① 수산리 고분 누리집(<http://contents.nahf.or.kr/goguryeo/susanri/index.html>)에 접속하도록 한다.
- ② ‘수산리 고분’을 눌러 수산리 고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 ③ ‘수산리 고분 가상 체험’을 누르도록 한다.
- ④ 수산리 고분에 입장하여 다양한 벽화를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도록 한다.
- ⑤ 모둠원 또는 학급 구성원들과 각 벽화를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⑥ 모든 벽화를 감상한 후 고대 벽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수산리 고분 누리집, 「수산리 고분 소개」

탐돌이는 주로 4월 초파일부터 15일까지 행해지는 놀이로, 불교 행사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불교 신자들이 절에서 승려들과 함께 탐을 돌면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고 자기의 염원을 빌었던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부터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가하는 놀이가 되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원성왕 때의 탐돌이에 관한 기록이 전해 오고 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흥륜사에서 탐돌이를 행하였다고 한다.



▲ 불국사 다보탑 탐돌이 행사(1982)

— 문화 콘텐츠 닷컴 누리집, 「24절기 이야기: 탐돌이」

## 추천 도서 및 영상, 관련 누리집

- 모난돌 역사 논술 모임, 『살아 있는 인물 열여섯』 1-2, 모난돌, 2014.
- KBS, 「영상 한국사: 안악 3호분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인의 삶」
- 문화유산 연구 지식 포털 <https://portal.nrich.go.kr/>